일본의 ILT 방역 현황 시찰
본회의 이상윤 회장과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과장은 일본의 ILT 방역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6월 28일 도일하였다가 7월 3일 귀국하였다.
이번 ILT 해외 조사단은 7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가축경작협회에서 귀국보고를 통해 예정이다.

Kim Sun Jae 박사
ILT 교육
본회의 찰갑위원이며 가축위생 연구소 연구원 임술재 박사는 7월 3일 오전 5시 25분부터 20분간 ILT 방역에 대해 KBS 제 1 TV를 통해 대중민교육을 하여 일반 농가로부터 큰 환영을 얻었다.

김순재 박사
ILT 교육
본회의 찰갑위원이며 가축위생 연구소 연구원 임술재 박사는 7월 3일 오전 5시 25분부터 20분간 ILT 방역에 대해 KBS 제 1 TV를 통해 대중민교육을 하여 일반 농가로부터 큰 환영을 얻었다.

ILT 피해
현재 조사
본회의 찰갑위원이며 가축위생 연구소 연구원 임술재 박사는 7월 3일 오전 5시 25분부터 20분간 ILT 방역에 대해 KBS 제 1 TV를 통해 대중민교육을 하여 일반 농가로부터 큰 환영을 얻었다.

ILT 백신 시판 개시
우리나라 특유의 형태로 크게 번창일로 에 있는 ILT는 이제는 산란체 부로 백신을 통해 제한 없이 거의 전국에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회에 따라 정부는 당초 발생지역에 한해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제한을 전면 수용한다 한편 백신을 수입 시설로 하였다.
백신은 녹십자 수의약품과 미국의 스타워사에서 한국바이오파워가 미국의 셀러버리 연구소에서 가지 셀러버리 백신수분을 7월 중순부터 수입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판가격은 10~12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질병예찰
위원회의 개최
6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는 가축
위생 연구소 이창구소장이 비롯한 관계관 참석하여 질병예방위원회가 개최 되었다.

질병예방위원회에 관한 기사는 본지 4월호에 소개 되었으며 이날 개최된 질병예방위

한국에서는 최근 만연되는 ILT 발병 문제가 토의되었다.

ILT 피해 사례 발표회

본회는 지난 6월 29일 전국 분회 및 지역 대표와 서울근교 및 대군일자 30여명이 본회

회의실에서 ILT 정책 교육을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전국 각지역 ILT 발병 현황과 ILT 경영 농장의 체험담 발표와 그후

대책에 대한 정책 교육을 하였다.

이날 발리된 바는 총계 9개 대군산과 최고원 브

로일리 농장에서 ILT가 광범위하게 전파되

고 있음을 밝혀졌다.

지역별 ILT 발병 현장이 빈번히 심각한

대사용 근교의 경우 북양주 일대에는 거의

전지역이 감염 되었다. 백석면의 경우 육계가

먼저 발생한 후 이 지역의 6~7명 대군 일자가

피해를 보았다 백석면은 화학중으로 이동해서 농부군 부지리 일대를 방문하여 지나갔다. 이 지역 K농장에도 ILT가 찾아왔다고 하여 포천 지역은 산란계는 수천만 60만
수의 농축육에 싸움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

남양주는 북양주에 비해 좀 덜한 편인데, 백석면의 일대는

전경계에 비해 좀 덜한 편이다. 야경에도 향가

며 채란계의 경우 많이 건강하면 피해가 적으나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피해가 36~40%로

산란율을 하락해서 피해가 크며 산란계의

경우 총산연의 일에 오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도 재배 사로 재배자들을 통한 방역에도 힘

썼다. 채란계의 경우는 약 15일이면 거

의 회복이 되고 있었다.

경기 광주지역은 산란계 육계 모두에 발생

했으며 안성의 한출계장에도 발생하였다. 안성

지역은 4월부터 시작해서 부화장들도 감당하고

브로일러 농장의 경우 약 1/3이 감당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 첫날 1마리 병체가 발생하였다.

음식 약 50쪽으로 감염이 되며 사료섭취량이 1/3

정도로 감소하고 200g정도 채중 감소로 경제

적 손실이 크다. 육계는 발병일에 따라 재

사용을 피해가 따르며 40일 이후로 발병

할수록 피해가 크게 때문에 발견했던 농장에

서는 체계적 추진을 하며 방제를 희사시켜 빨리

감염토록 하는데 새로운 질병이라 마련도 갖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

전에 오면 사망관리에 따라 다루나 5% 정도

폭사에 그치나 30일경에 이후에는 즉시 처분을

하고 있는 현재이며 각지사와 육계과 합병증을

막기위한 투약등 코었고 정식적 손실이 크다.

부산지역은 발생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이곳 J농장의 경우 사망으로

부터 옮겨질것 같다고 한다. 37일령 1,400g

출생한 채로 발생된 적이 우울한 장소

하다 연사로 옮겨가 시작해서 빨리 사육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1회 5,000

수예 발병으로 농장은 사망으로 이어져서 빨리 50~

70마리씩 폐쇄되어 약 13% 정도가 ILT로 폐

사하였다. 이 지역은 ILT가 들어오자 얼마

나 동가 보조치고 능력으로 버팀목 농장은 폐

사에 40% 사료섭취량이 감소해서 피해가

있으며 폐쇄 40~54일경에 감염 되었다.

온양 지역도 ILT가 발생했다고 하여 전북

은 5개의 집단 농장 모두에 ILT가 나갔다.

전남에도 사란계 사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봉사지역은 1~2점에 ILT가 있었다고 한다. 경북지역은 감염을 비롯해서 대구

근교에 안전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후적 농장은 오히려 한술 높으나

작히 얻지 않은곳은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

있는 실정이다.